

2022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해설

[인문]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인문사회계열	문항번호	■ 1번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경제, 세계사, 정치와 법	
	핵심개념 및 용어	능력주의, 효율성, 신분제 사회, 사회·경제적 양극화, 공동체 의식	
예상 소요 시간	문항 1: 70분, 문항 2: 5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지와 동일

3. 출제 의도

본 논술고사는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제시된 글 자료의 요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과 제시된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답안 작성 시, 글 자료 해석과 데이터의 분석뿐 아니라 관련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논제는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찬반 입장 선택에 관한 것이다. 글 자료는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는데 필요한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능력을 측정·비교하는 데 능력주의가 지닌 한계,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한 지위와 소유물에 대한 권리, 한정된 재화를 유능한 인재에 집중한 효과, 개인주의가 공동체 발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 문화자본의 차이가 개인의 능력에 미친 영향, 17세기 스페인 신분사회의 폐쇄성과 폭력성과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반론을 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데이터 자료는 공공기관 부문, 사회 양극화, 교육 부문, 기업 부문에 능력주의가 미친 영향 데이터를 제시한 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선택한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등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법과 작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독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언어와 매체 <input type="checkbox"/> 문학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활과 윤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윤리와 사상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합사회 <input type="checkbox"/> 한국지리 <input type="checkbox"/> 세계지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계사 <input type="checkbox"/> 동아시아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치와 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input type="checkbox"/>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국어
	(가)~(사)	성취기준 1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화법과 작문
	(가)~(사)	성취기준 1	3.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2	4.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
	(가)~(사)	성취기준 1	5.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6.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언어와 매체	
(가)~(사)	성취기준 1	7.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관련
성취기준

2.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논제, (가) 논제, (나)	성취기준 1	8.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논제, (다)	성취기준 2	9.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윤리와 사상
논제, (라)	성취기준 1	10.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통합사회
논제, (가) 논제, (나)	성취기준 1	11.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논제, (다) 논제, (마)	성취기준 2	12.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세계사
논제, (바)	성취기준 1	13. [12세사04-02] 서유럽 봉건 사회의 전개 양상을 탐구하고,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세계관의 변동을 설명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정치와 법
논제, (나) 논제, (마)	성취기준 1	14.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경제
논제, (사)	성취기준 1	15.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성취기준 2	16.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문화
논제, (사)	성취기준 1	17. [12사문01-0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논제, (마)	성취기준 2	18.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논제, (가) 논제, (바)	성취기준 3	19.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신사고	2020	214-215	공통	○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20	116-133	공통	○
국어	이성영 외	천재교육	2020	205-233	공통	○
국어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20	164-207	공통	○
화법과 작문	이도영 외	창비	2020	160-181	공통	○
화법과 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20	112-121, 162-173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20	152-169	공통	○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71-129	공통	○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40-63	공통	○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90-109	공통	○
언어와 매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20	154-171	공통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	2020	90-97	(나), (다)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90-94	(나), (다)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20	91-97	(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20	94-99	(다)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	2020	181-184	(라)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20	188-190	(라)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84-188	(라)	○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	2020	164-175	(가), (다), (라), (마)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0	166-190	(가), (나), (다), (마)	○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20	171-195	(가), (다), (라), (마)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78-197	(가), (나), (다), (마)	○
정치와 법	모경환 외	금성	2020	33-35	(마)	○
정치와 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20	34-38	(마)	○
정치와 법	정필운 외	비상교육	2020	31-32	(마)	○
정치와 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31-33	(나), (마)	○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20	54-68	(마)	○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0	22-26, 50-65 140-156	(가), (마), (바), (사)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20	23-62, 144-146	(가), (마), (바), (사)	○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20-23, 53-75 144-157	(마), (가), (바), (사)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55-63 136-141	(가), (마), (바)	○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능력주의	마이클 영 (유강은 역)	이매진	2021	3장, 8장	(가)	○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패트릭 J. 드닌 (이재만 역)	책과함께	2019	185-215	(마)	○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포트킨 (김영범 역)	르네상스	2005	39-40	(라)	○
불평등한 어린 시절	아네트 라루 (박상은 역)	예코	2012	37-68	(마)	○
엘리트 세습	대니얼 마코비츠 (서정아 역)	세종서적	2020	485-500	(사)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20	76-80	(사)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20	146-149	(사)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0	78-83, 24-127	(사)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20	86-89, 42-143	(사)	○
세계사	최준채 외	미래엔	2020	110	(바)	○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	2020	116	(바)	○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	2020	117	(바)	○

5.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개념과 지식은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문항은 제시된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안을 선택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반론, 그리고 재반박에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논제는 ‘능력주의를 찬성한다’와 ‘능력주의를 반대한다’는 두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능력주의 찬성 논거를 위한 제시문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제시문 (나)], 능력주의를 통한 연구 생산성 향상[제시문 (다)], 신분사회의 폐해를 묘사한 연극 [제시문 (바)] 지문이 제시되었고, 능력주의 반대 논거를 위한 제시문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협소함[제시문 (가)], 공동체적 가치관을 통한 사회발전[제시문 (라)], 능력의 세습과 계층화[제시문 (마)] 지문이 제시되었다.

[문항 2]는 제시문 (사)의 <자료 1>부터 <자료 4>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능력주의 찬성의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1>과 <자료 4>, 반대의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와 <자료 3> 중에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는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에서 언급된 능력주의의 의미를 소개하고, 능력주의로 인해 신분이나 자본이 아닌 교육을 통한 신분 이동이 가능해짐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지능검사가 발달함에 따라 11세 때의 지능을 기준으로 입학할 학교가 달라지고 졸업 후 사회적 대우도 달라지게 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계층이 생겨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능력의 기준은 다양한데 이를 지능과 노력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다른 능력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본 제시문은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능력주의가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들어 능력주의를 찬성하는 지문이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여 정의로운 사회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제시문은 독립적 존재로서 개인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유주의자 노직을 인용하여, 부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자유롭게 자기 계발을 하여 얻은 자격이 소유권의 원천이 됨을 강조한다. 이 제시문은 방법이 불의하지 않다면 개인이 지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가 분배되는 것은 공정하다는 논거로 이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우수한 과학자에 대한 집중적 연구 지원이 갖는 정당성에 관한 내용이다. 소수의 우수한 과학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연구성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늘어난 과학적 결과물이 전체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 제시문은 능력에 따른 보상이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그 혜택이 전체 사람들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들어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시문 (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개미의 사례를 통해 개인의 능력보다는 구성원 간의 이타적 협력이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는 지문이다. 이를 통해 협력보다는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기는 능력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은 개미의 소화기관이 두 개로 진화한 예를 통해, 개체 간 협력이 개미가 갖는 독특한 성질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적 삶이 뛰어난 건축물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회체계를 이룰 수 있는 토대임을 설명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협력의 강조를 통해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능력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한 사람의 가정환경이 그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교육 역시, 학생들이 부모의 역량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경쟁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제시문은 한 사람의 능력이 실로 그 개인의 지능과 노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세습되는 측면이 크기에, 능력주의가 오히려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 반대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로페 데 베가의 『사려 깊은 주인 모시기』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17세기 스페인 사회의 신분제도를 비판한다. 능력이 아닌 가문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는 17세기 스페인에서는, 소수의 귀족이 권력과 명예를 독점하였고 부르주아 계급이나 평민의 신분 상승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설령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족 중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귀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분 사회가 갖는 이러한 불공평함은 신분이 아닌 능력에 의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능력주의에 대한 찬성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 1]은 공공 부문에 능력주의를 적용할수록 그 국가의 부패인식이 낮아지고 정부신뢰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자료 1-1>의 문항에서 공무원이 표준화된 시험에 선발될수록, 의사결정 과정이 하향식이 아닐수록, 그리고 성과를 기준으로 연봉이 산정될수록 능력주의 수준이 높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공공 부문의 능력주의 정도가 높은 C, B, A 집단의 순으로 부패지수가 낮고 정부신뢰도가 높음을 <자료 1-2>의 분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두 자료를 종합해볼 때,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능력주의가 부패의 정도를 낮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찬성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 2]는 능력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을 보여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2-1>과 <자료 2-2>에서 제시된 노동 숙련도에 따른 고용비중과 평균소득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함께 해석해야 한다. <자료 2-1>에서는 시기별 바그레프가 보여주는 변화율을 통해, 능력주의가 확대되면

서 고숙련과 저숙련 노동의 고용비중은 늘어나지만 중간숙련 노동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료 2-2>에서는 노동집단별 평균소득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중간숙련 노동자의 평균소득이 고숙련에 비해 낮아지고 저숙련과 비슷해지고 있음을 읽어야 한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 확대에 따라 중간 계층의 고용 규모와 소득이 줄어들어서 복합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야기됨을 알 수 있다.

[자료 3]은 여러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자료 3-1>에 제시된 항목들을 통해, 고등학교의 상대평가 등급제와 비평준화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교육제도를, 주당 학습 시간은 경쟁의 정도를,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그 결과로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나타냄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한 <자료 3-2>를 통해 교육의 능력주의 정도가 학습시간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학습시간은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제도가 구성원 간 경쟁을 높여 인간관계와 심리적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4]는 능력주의가 각자의 차별화된 능력을 특화함으로써 개인의 보상과 전체 사회의 생산을 높일 수 있음을 자료를 통해 읽도록 하였다. <자료 4-1>은 두 노동자의 두 가지 재화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을 제시하여 두 노동자가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 갖는 생산능력의 차이를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과급제와 같은 능력주의 제도의 도입이 생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나타냄으로써, 능력주의가 개인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도록 유인하여 각자에게 돌아가는 보상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생산성을 높임을 파악하게 하였다.

6.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자신이 선택한 주장의 정당화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선택의 정당화 (18점)	주장 1(찬성) 선택의 정당화	주장 2 (반대) 선택의 정당화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논거: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능력에 따라 소유하는 것이 공정함(0~6점) - (다)의 논거: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생산적임(0~6점) - (바)의 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그 기준이 모호함(능력없는 사람이 신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0~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논거: 지능과 노력 외의 다른 다양한 능력을 보상하지 못함(0~6점) - (라)의 논거: 지나친 개인주의로 이타적 협력과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함(0~6점) - (마)의 논거: 능력은 혼자만의 힘이 아닌 부모와 환경을 통해 만들어짐(0~6점) 	
글의 논리성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2점) 		
■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한 반론			
제시문 (가)~(바)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론(18점)	주장 1(찬성)에 대한 반론	주장 2(반대)에 대한 반론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논거: 지능과 노력 외의 다른 다양한 능력을 보상하지 못함(0~6점) - (라)의 논거: 지나친 개인주의로 이타적 협력과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함(0~6점) - (마)의 논거: 능력은 혼자만의 힘이 아닌 부모와 환경을 통해 만들어짐(0~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논거: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능력에 따라 소유하는 것이 공정함(0~6점) - (다)의 논거: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생산적임 (0~6점) - (바)의 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그 기준이 모호함(0~6점) 	
글의 논리성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2점) 		
■ 반론에 제기된 논거에 대한 재반박			
제시문 (가)~(바)를 활용하여 반론에 대한 재반박 (18점)	주장 1(찬성) 선택 재반박 논리(예시)	주장 2(반대) 선택 재반박 논리(예시)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논거 재반박: 다양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비교할 기준이 없음(0~6점) - (라)의 논거 재반박: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음(0~6점) - (마)의 논거 재반박: 부모와 환경의 차이도 공교육과 공공정책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0~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논거 재반박: 사회적 약자에게도 몫이 돌아가는 것이 공정함(0~6점) - (다)의 논거 재반박: 후발주자에게 돌아갈 기회가 박탈되어 장기적으로 생산성 하락 (0~6점) - (바)의 논거 재반박: 능력주의 사회에서도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이 어려움(0~6점) 	
글의 논리성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2점) 		
점수			60점

[문항 2]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주장 1(찬성) 선택	주장 2(반대) 선택	
제시문 (사)의 [자료 1]~ [자료 4] 해석	■ [자료 1]의 분석과 해석 (20점) - <자료 1-1> 분석: 시험 선발, 상향식 결정, 성과 연봉을 하는 C,B,A 집단 순으로 공공 부문의 능력주의 수준이 높음(0~5점) - <자료 1-2> 분석: C,B,A 집단 순으로 부패지수가 낮고 정부신뢰도는 높은 쪽에 국가들이 분포해 있음 (0~5점) - 해석: 투명한 선발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부패가 낮고 신뢰가 높아짐(0~10점)	■ [자료 2]의 분석과 해석 (20점) - <자료 2-1> 분석: 고속련과 저속련 노동의 고용 비중은 높아지지만 중간속련 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감소(0~5점) - <자료 2-2> 분석: 중간속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고속련 노동자에 비해 줄어들고 저속련 노동자와 비슷해짐(0~5점) - 해석: 중간 계층의 규모와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0~10점)	40점
	■ [자료 4]의 분석과 해석 (20점) - <자료 4-1> 분석: 노동자A는 가방에, 노동자B는 구두에 비교우위가 있음 (0~5점) - <자료 4-1> 분석: 성과급제 도입으로 비교우위 역량에 집중하게 되어 전체 생산량 증가 (0~5점) - 해석: 차별화된 능력을 개발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0~10점)	■ [자료 3]의 분석과 해석 (20점) - <자료 3-1> 분석: 등급제와 비평준화가 능력주의를, 학습시간은 경쟁을 의미함을 알아, 이것이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계가 있음을 파악함(0~5점) - <자료 3-2> 분석: 등급제·비평준화는 학습시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학습시간은 교우관계·학교생활 만족도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짐(0~5점) - 해석: 능력주의 교육환경 아래의 과도한 경쟁은 청소년의 만족도를 떨어뜨림(0~10점)	

* [문항 1]에서 선택한 주장(찬성 혹은 반대)과 다른 주장(반대 혹은 찬성)을 택한 경우, 0점 처리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10점까지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5">1번</td> <td>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td> <td>(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td> </tr> <tr> <td>500자 - 699자</td> <td>10점 감점(-)</td> </tr> <tr> <td>700자 - 899자</td> <td>5점 감점(-)</td> </tr> <tr> <td>900자 - 1,100자</td> <td>감점 없음</td> </tr> <tr> <td>1,100자 초과</td> <td>5점 감점(-)</td> </tr> <tr> <td rowspan="5">2번</td> <td>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td> <td>(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td> </tr> <tr> <td>340자 - 439자</td> <td>10점 감점(-)</td> </tr> <tr> <td>440자 - 539자</td> <td>5점 감점(-)</td> </tr> <tr> <td>540자 - 660자</td> <td>감점 없음</td> </tr> <tr> <td>660자 초과</td> <td>5점 감점(-)</td> </tr> </tbody> </table>		1번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2번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1번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2번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7. 예시 답안

'주장 1'을 선택한 경우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100자)

능력주의를 찬성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개인이 지능과 노력을 통해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삶을 향상하려는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회이다. 능력에 따른 성과는 사회 재화의 분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5%의 뛰어난 과학자가 과학발전을 견인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이롭기 때문이다. 나아가 (바)에 나타난 17세기 스페인과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 상승 자체가 어렵거나 불의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계층상승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방법도 가문이나 핏줄보다 개인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처럼 능력주의는 지능과 노력만을 능력으로 간주하기에 친절함, 공감력, 관대함과 같은 다양한 능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다. 또한 (라)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흐르기 쉬워 사회 구성원 간에 과도한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오히려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개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타적 협력은 고도로 발전된 사회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끝으로 (마)와 같이 개인의 능력이 노력 못지않게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기에 온전히 자기만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지능과 노력 외에 공감력이나 관대함과 같은 능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 능력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타적 협력에 토대를 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으며, 삶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자유롭게 발휘되기도 어렵다. 끝으로 개인마다 서로 다른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재력과 같은 출발선의 차이는 공교육의 향상과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근거에서 능력주의를 찬성한다.

(원고지 기준 1,070자)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600자±60자)

능력주의 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자료 1]과 [자료 4]이다. <자료 1-1>에서 표준화된 시험으로 선발하고 하향식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며, 성과 기준으로 연봉이 산정되는 공공 부문의 능력주의 수준이 높다고 할 때, C, B, A 집단 순으로 능력주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1-2>는 C, B, A 집단 순으로 부패지수가 낮고 정부신뢰도가 높은 분포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공직의 선발과 운영, 보상이 능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질수록 공공 부문의 부패가 낮아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료 4-1>에 제시된 두 노동자의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노동자 A는 가방, 노동자 B는 구두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별 생산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성과급제를 도입하자, 각 노동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비교우위를 갖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였다. 이에 따라 가방과 구두의 생산량이 각각 9개에서 12개로 증가하였고, 각 노동자가 받는 보상 역시 늘어났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각자의 차별화된 역량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사회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원고지 기준 586자)

'주장 2'를 선택한 경우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100자)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제시문 (라)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개미의 경우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할 때 개인의 삶은 물론 인류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각 개인의 능력 탓으로 여기는 능력주의는 개인주의를 과도하게 조장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또 (마)와 같이 개인의 능력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 개인의 능력이 전적으로 타고난 지능과 노력만으로 획득된다는 능력주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외에도 (가)에서 보듯이 사람의 능력은 다양하여 각 능력이 지닌 가치 간에 우열을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특정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능력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제시문 (나)는 재화의 분배에서 중요한 문제는 전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의 마련이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획득한 소유와 보상을 인정하는 능력주의만큼 객관적인 방법은 없다고 반박한다. 또 (다)와 같이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에 걸맞게 차등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생산적이라는 점에서 능력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바)에서처럼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거나, 권력자의 자의와 전횡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신분 상승을 이루던 사회를 타파하는데 능력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적 근거를 통해 능력주의를 지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사회의 기본 전제인 사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은 능력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무시할 수 있고,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다수가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조건을 빼앗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능력에 따른 사회에서도 능력이 대대로 세습됨으로써 사회적 계층의 분화가 날로 심화하고 공고화되어,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은 여전히 어렵다.

(원고지 기준 1,009자)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600자±60자)

[자료 2]와 [자료 3]은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먼저 <자료 2-1>에 따르면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고숙련과 저숙련 노동의 고용 비중은 높아지지만, 중간숙련 노동의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자료 2-2>는 능력주의가 확대될수록 중간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이 고숙련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저숙련 노동자와 비슷해짐을 보여준다. 두 자료를 종합할 때 능력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중간 노동계층의 크기와 소득이 줄어들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짐을 알 수 있다. <자료 3-1>은 상대평가 등급제와 고등학교 비평준화로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 실시 여부를 조사하고,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측정한다. <자료 3-1>의 내용을 상관관계로 정리한 <자료 3-2>에 따르면 상대평가 등급제와 고등학교 비평준화를 실시한 국가의 학습시간이 길다. 학습시간은 청소년의 교우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에 기반한 교육제도에서는 청소년 간 경쟁이 심화되고 학습시간이 늘어나 교우관계가 멀어지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심리적 만족감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원고지 기준 596자)